

“환자가 약 먹듯 정법 의지하라”

「깨달음의 길로 가는 올바른 순서」 초켄스님 번역

성불은 불교수행과 신법의 목표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부처님께서 이미 알려 주셨고 선지자들이 거듭 밝혔기에 결코 멀리 있지 않다.

티벳의 스승 퉁카빠대사의 《보리도차제(高麗道大師)》(깨달음의 길로 가는 올바른 순서) 역시 경전에 의지하여 생활속에서 마음을 변화시키고 아주 쉽게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고 있다. 한국에 와서 2년 가까이 공부하고 지난 19일 남인도 규에 밀교대학으로 돌아간 초켄스님(32)의 번역을 간추려 소개한다. 스님이 번역한 《깨달음의 길로 가는 올바른 순서》는 도서출판 여시아문에서 곧 단행본으로 펴낸다. (편집자 주)

경전에서 얻는 이익 '경전을 배움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은 첫째,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보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나 신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중생들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가르치신 것이 정법이다. 이 정법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소승이나 대승이나 경(經)과 선(禪) 같은 구분은 없다. 이것은 모두 하나의 가르침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며, 단지 이름만이 구별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음을 위한 가르침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인 것이다.

깨달음을 위해서는 사상제, 십이연기, 육바라밀에 대해 알아야 하고 그 이후에는 탄트라도 공부해야 한다. 우리 몸과 팔과 다리가 필요하듯이, 다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중생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인가.

둘째, 모든 가르침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보리도차제'에 대하여 배우지 않으면 자신을 잘 교육시키지 못하게 된다. 최고의 교육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으로 만들어진 경전들이다. 요즘 사람들은 대장경에 대하여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실제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적으며, 또한 위대한 스승들의 말씀도 배우려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나 열반만 하면 이것을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세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처님이나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을 넓게 자세히 배우지 않고 아주 조금만 기도나 참선만으로 평생동안 수행하는 것은 바르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르침을 자세히 배우야 하며, 기도와 참선도 같이 행해야 한다. 마치 자동차가 네 개의 바퀴가 있어야 갈 수 있듯이 가르침을 자세히 넓게 배우게 되면 어떠한 경전을 대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

셋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하게 된다는 점이다. 부처님과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은 '보리도차제'에 의지하지 않으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초발심, 보리심, 공상에 대하여 자세히 알게 되면,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으로 우리를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대장경은 바다와 같다. '보리도차제'라는 배를 타고 선장과 같은 스승의 힘에 의지해야 바다 속의 보석같은 대장경의 핵심을 쉽게 얻을 수 있다.

넷째, '보리도차제'를 보게 되면 자신이 지니고 있는 단점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초발심, 보리심, 공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한다. '보리도차제'에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어 있다.



췌링 초켄스님

티벳에서 인도로 망명해 온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14세 때 인도 남부에 있는 티벳의 큰 사찰인 '규에'에서 출가했다. 19년 동안 한 교에서부터 밀교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배웠다. 한국에 1년 9개월 동안 머물면서 《깨달음의 길로 가는 올바른 순서》를 번역했다.



○부처님 가르침은 최고의 교육이므로 경전에 의지해 폭넓고 자세히 배우면 어둠속에 빛이 있어 물건을 볼 수 있듯 지혜가 생긴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경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키와 같이 소중한 것이다. 어떤 특정한 경전에만 의지하지 않고 '보리도차제'와 같은 경전에 의지하여 폭넓게, 높게 배우면 깨달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 자신의 단점들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된다.

가르침 듣는 방법

먼저 가르침을 들음으로써 생기게 되는 이익을 살펴보자. 가르침을 듣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가르침을 들음으로써 생기게 되는 이익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익은 바로 기쁜 마음으로 그 가르침을 듣고자 하게 하는 힘이다. 들음으로써 해서 종교를

되고, 명상과 정진을 하게 되며, 악업을 피하게 되는 말음이 생기게 되며, 악업을 피함으로써 생기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들음에 의하여 무지와 지혜를 구별하여 알게 되고, 또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이득도 생기게 되므로 들음은 실속 자신의 배와 살을 주고서라도 얻을 수 있으면 얻어야만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한 정성에 살을 주고서 바른 가르침의 들음을 구한 적이 있는데, 배와 살을 주지 않고서도 구할 수 있는 지금은 더욱 더 열심히 바른 가르침을 들어야만 하는 것이다. 들으면 들수록 지혜는 높아진다. 지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며, 수행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더욱 더 쉽게 얻을 수가 있게 되므로 우리들은

경전에서 얻는 이익

부처님 가르침대로 행하면 자기의 단점 자연히 없어져

가르침 듣는 방법

자신을 병자라 생각하고 스승을 부처님처럼 공경

가르치는 방법

가르침 구하는이 근기따라 자비심으로 의사 병고치듯

알게 되며, 죄를 질책하게 되며, 무의미한 일들을 피하게 되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등이다. 들음은 무명엔 눈부신 등불이며, 도둑들에게는 도둑질을 할 수 없는 보석이며, 무지의 적을 정복하는 무기이며, 자기 자신에게는 불림없이 충고하는 친구이며, 가난하게 되어도 변치 않는 친구이며, 고통이라는 병의 해롭지 않은 약이며, 제왕의 군사를 물리치는 최고의 군사이며, 수행자들을 만날 때는 최상의 선물이며, 명상과 영광 그리고 가장 귀한 보석과도 같은 것이다.

들으면 들수록 무명은 없어지고 그만큼의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다. 어두운 집 속에 빛이 있으면 자기 눈으로 물건들을 볼 수 있듯이 들음의 빛에 의지하면 지혜의 눈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여 볼 수 있다. 들음에 의해 생긴 지혜의 보석은 다음 생으로 가져가게 되는 재산이기도 하다. 들음에 의하여 스스로 삼보에 귀의하게

더 많은 가르침을 깊게 배우야 하는 것이다.

'법과 법을 가르치는 스승을 존경하는 방법'으로는 스승들을 부처님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경해야 한다.

첫째, 스승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시간에 맞추어 가르침을 청해야만 하며, 자기 시간에 맞추어 가르침을 청하여서는 안된다.

둘째, 항상 스승을 공경하여 잘 받들어 모셔야 한다. 셋째, 스승이 어떤 일을 시키면 화를 내서는 안된다. 넷째, 스승이 시키는 일을 하고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가 하면서 원망하면 안된다.

다섯째, 법과 스승에 대하여 하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된다.

'가르침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는 방법'으로는 가르침을 잘못 들을 수 있게 되는 세 가지 경우와 잘 들

어서 알 수 있게 되는 여섯 가지가 있다.

잘못 들을 수 있게 되는 세 가지는 ①그릇이 뒤집어져서 있는 잘못 ②그릇 안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잘못 ③그릇에 구멍이 나 있는 잘못 등이 있다.

그릇이 뒤집어져 있으면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가르침을 들을 때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무슨 가르침을 예기하지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가르침을 들을 때 집중하지 않으면, 그 장소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 그 안에 더러운 냄새나 독이 들어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넣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가르침을 집중하여 잘 들으면서도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면 자기의 마음을 변화시키기가 어려운 것이다. 또한 자신만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도 좋지 않다. 그리고 그릇에 구멍이 나 있으면 아주 맛있는 음식을 담아도 흘러 버려서 소용이 없게 되는 것처럼 가르침을 잘 집중하여 들어야 하며, 동기가 순수하다면 가르침을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잘 알 수 있게 되는 여섯 가지는 ①자기 자신이 병자라는 인식 ②바른 가르침(正法)이 병을 낫게 하는 약이라는 생각 ③스승이 훌륭한 의사라는 생각 ④병자인 자기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한 노력 ⑤바른 가르침을 퍼신 부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올바른 인간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 ⑥바른 가르침이 오래도록 남아 있게 하겠다는 생각 등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병자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병자로 생각하면 나머지 다섯가지의 생각도 따라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탐욕 성냄 질투 자만 등 탐진치 삼독(三毒)의 병에 걸려 있다.

우리는 보통 하나의 병에만 걸려도 매우 고통스러워 하며 곁을 내면서도 탐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병에 걸려 있는 것을 걸먹이는 커녕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 자신을 병자라고 생각하게 되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삼독의 병을 없애는 약은 바른 가르침(正法) 뿐이므로 당연히 이것을 구해야만 한다.

가르치는 방법 첫째, 가르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을 생각해야 한다. 자신의 이득을 바라지 않고 바른 가르침을 배워야 하며,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자비심으로 가르쳐야 한다. 많은 물건을 보시하여 배우는 것보다 바른 가르침 한 마디를 배우는 공덕이 더욱 큰 것이다. 이런 이득들은 자신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약이요 생각하면서 가르쳐야 한다.

둘째, 부처님과 그 가르침을 공경해야 한다. 왜냐하면 바른 가르침은 부처님들께서도 공경해야 하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몸소 일깨워 주셨기 때문이다.

셋째, 어떤 동기와 행동으로 가르침을 배워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누구나 자신을 불보듯이, 또는 불쌍한 이들을 잘 보살피려는 자비심으로 자신을 의사처럼 생각하고 병자들을 치료하듯이 배우는 이가 가르침을 깨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

넷째, 가르쳐야 되는 이와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이를 구별해야 한다. 가르침을 구하지 않는 이에게는 가르치지 않아야 하며, 가르침을 구하는 이의 능력을 살펴 배워야 한다.

다섯째, 가르침을 배우는 이와 가르치는 이가 함께 바른 가르침이 세상에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기원해야 하며, 일체 중생들이 함께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기원해야 한다.

生光石은 자연입니다.
生光石은 원석 그대로입니다.
生光石은 자연이 베푼
마지막 축복입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와서 자연에서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자연에서 살지 못하고 독성을 내뿜는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기에게 소 젖보다 어머니 젖이 좋듯 사람에게서 자연의 정기가 좋습니다. 生光石은 강원도 영월에서 채광된 가공되지 않은 신비의 자연 그 자체입니다.

자연의 파장 生光石, - 건강과 생활환경을 지켜줍니다.

- 헬스톤 100
 - 100% 生光石으로 만든
 - ◎ 헬스톤 100으로 시공된 집은
 - 건강 가족 모두에게 건강을 드립니다.
 - 환경 심플한 실내공기와 쾌적한 생활 환경을 드립니다.
 - 위생 철저한 생활위생을 보장합니다.
 - 경비 헬스톤 100의 시공, 경비를 되돌려 드립니다.

- 생광석 108염주
 - 생광석 108염주로 부처님 영호를 열하시면서 기도하시면,
 1. 모든 법당이 소멸되고 기도 원을 부처님께서 만들어 주실것이며
 2. 하나의 마음으로 부처님을 영호하시면
 3. 어떠한 어려운 일도 잘 빠져 나가실 수 있을 것이며,
 4. 늘 다니고 다니시면 부처님이 함께 하시며 보살과 구실 것이며
 5. 내 마음의 심정을 함께 신한 마음을 가지시면
 6. 그것이 곧 부처님 계시 법당이며
 7. 생활속에서 작은 복을 짓는 것이 부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 생광석 108염주를 늘 몸에 지니시면,
 1. 손에 쥐고 기도하시면, 손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지며
 2. 목에 거시면, 목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집니다.
 3. 어깨 부위에 올려 놓으시면, 어깨 결림이 현저히 줄어들며,
 4. 팔목이나, 팔에 감으시면, 팔목이나, 팔의 통증에 큰 도움이 되며,
 5. 의뢰가 될인 업하고, 기분이 상쾌하며, 번덕번덕이 좋아집니다.

- 베게 (학생, 사무직근로자, 노인, 폐연기, 여주자)
 1.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상쾌하다.
 2. 뇌의 혈액순환과, 대사작용을 촉진시켜 잠을 푹 잘 수 있다.
 3. 불쾌한 머리 냄새를 없게 한다.
 4. 상처가 잘 아물고 머리결을 건강하고 부드럽게 한다.
 5. 고개가 부드럽고 유연해진다.
- 방석 (한곳에 오래 앉아 있는 분, 주부, 자가운전자)
 1. 새포를 활성화시켜 피로회복을 돕는다.
 2. 배설기관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다.
 3. 불쾌한 냄새를 없애 준다.
 4. 목통이나 불편한 부위에 올려 놓으면 좋은 효과가 있다. (따뜻하게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5. 자동차의 운전석과 조수석에 놓고 앉으면 차체의 담배 냄새를 불쾌한 냄새를 없애고, 차내 공기를 맑고 쾌적하게 하며, 장시간 운전하여도 피로감이 거의 없다.
 6. 여름에 오랫동안 한곳에 앉아 근무를 해도 허프의 땀띠나 사타구니의 축축함이 없고 쾌적하다.
 7. 장기간 사용하면 치질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
 8. 방석(목)을 3개 연결하면 건강메트로 사용할 수 있다.

그외에 냄새제거, 수축관 환경유지, 피부미용, 혈운의 건강성, 난초·화초재배용 生光石이 있습니다.

- 韓國 生光石 허리벨트
 - 한국 생광석 허리 벨트는, 사람의 세포 운동 과정인, 936 마이크로의 세포 활성 에너지로, 실 생활 온도에서, 효과적인 방사를 하는, 생광석 제품으로, 허리 부위의 세포를 활성화 하고, 혈액 순환과 신진 대사를 촉진시켜, 허리결림,

허리 통증등과 생리통 등에 큰 도움을 주며, 허리 보호에도 좋습니다.

허리를 미리 미리 보호하십시오. 허리가 후사당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분들께 권합니다.
 1. 혈액 순환과 신진 대사 장애에 의한, 허리 결림이나 통증이 있으신 분
 2. 아랫배가 차고, 소화가 잘 안되시는 분
 3. 앉거나, 선 채로 장시간을 지내야 하는 분
 4. 출산 후의 여성, 생리통이 있는 여성
 5. 허리를 보호해야 할, 50대 이상의 노인
 6. 허리가 비만하고 허리가 유연하지 못한 분
 7. 허리를 다치기 쉬운 스포츠맨, 또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
 8. 무거운 짐을 자주 들거나, 서서 일을 많이 하시는 가정 주부 또는 선생님
 9. 허리를 고정한 채로 오래 있어야 하는 운전 기사, 뉴시클 등등
 10. 평소 소홀히 하기 쉬운 허리, 허리는 나를 사할답게 서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나를 지켜주는 대들보입니다.

KSC 한국생광석주식회사
TEL 서울: (02) 737-0695
대구: (053) 422-6661~2
창원·마산: (0551) 63-7296
진주: (0591) 53-5494